

APEC 정보통신부문(TEL)의 동향과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 대응방안

■ 남 상 열*

2012년 8월 7~8일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 9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가 개최된다. 이번 장관회의는 '경제성장과 번영 촉진을 위한 ICT 이용의 신뢰 및 보안 구축'을 주제로 정보통신부문의 인적, 물적 인프라 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경험을 공유하여 아태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결과를 담아 장관 선언문(St. Petersburg Declaration)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본고에서는 이번 TELMIN 9의 개최를 계기로 APEC 및 정보통신부문(TEL)의 추진동향과 우리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목 차

- I. 서론: APEC 및 정보통신부문(TEL) 개요 / 1
 - 1. APEC 개요 / 1
 - 2. APEC의 운영 및 2012년 우선추진과제 / 4
 - 3.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개요 / 7
- II. 정보통신부문(TEL) 추진동향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 9
 - 1. TELWG의 주요 활동성과 및 추진사업 / 9
 - 2.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와 TEL 전략적 실행계획: 2010-2015 / 13
 - 3.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 18
- III. 결론: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 대응에의 시사점 / 20

I. 서론: APEC 및 정보통신부문(TEL) 개요

1. APEC 개요

APEC은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표방하는 아태지역 최고의 경제포럼으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역동적이고 조화로운 아태 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570-4370, synam@kisdi.re.kr

건설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APEC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의 촉진 및 가속화,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의 장려,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제고, 우호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등을 위해 협력한다. 또한 비구속적 및 자발적 참여(non-binding and voluntarism)의 원칙에 따라 개별실행계획(individual action plan: IAP)과 공동실행계획(collective action plan: CAP) 등의 발의를 통하여 정책목표에 대한 합의를 구체적인 성과와 실질적인 혜택으로 변환시킨다.

APEC은 1989년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12개 회원경제로 출범하여 1992년까지 비공식적인 고위관리 및 각료급회의로 운영되었다. 이후 1993년부터는 매년 회원경제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역내 현안을 논의하는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21개 회원경제로 구성되어 있다.¹⁾

<표 1> APEC의 회원경제 구성 및 가입연도

가입 연도	회원경제
1989 (APEC 출범)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1991	중국, 홍콩, 대만(Chinese Taipei)
1993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1994	칠레
1998	페루, 러시아, 베트남

자료: <http://www.apec.org> 자료 정리

1) APEC은 1991년 우리나라의 주도로 중국, 홍콩, 대만의 삼중국이 동시에 가입하면서 이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회원국(member countries)이 아니라, 회원경제(member economies)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같은 이유로 대만은 Taiwan이 아니라 Chinese Taipei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APEC의 출범 이후 주요 성과와 이익을 무역투자 자유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사업원활화(business facilitation), 경제기술협력(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및 기타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²⁾ 무역투자 자유화와 관련해서는 1994년 인도네시아 보고르(Bogor) 정상회의에서 선진 회원경제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 회원경제는 2020년까지 아태지역의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달성한다는 보고르 목표(Bogor Goals)를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사업원활화 측면에서는 APEC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rade Facilitation Action Plan, TFAP I & II)을 통하여 역내 거래비용을 2002~2006년 및 2007~2010년 사이에 각각 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하였다. 경제기술협력은 다양한 경제발전단계에 있는 회원경제들이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하여 역내 경제활동 및 무역자유화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와 함께 APEC 협력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 1,200여 건의 능력배양을 위한 경제기술협력사업들이 실행되었으며, 역내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등 디지털 격차의 감축은 주요 관심대상 분야의 하나이다. 그 외에 APEC 협력은 의제 면에서 테러대응, 인간안보,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청정개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새롭게 부상하는 역내 현안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표 2> APEC 협력의 분야별 주요 성과

협력 분야	주요 성과
1. 무역투자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 2010년, 개도국 2020년까지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달성 (보고르 목표) - 1989년 APEC 설립 당시 역내 무역장벽(평균관세율)은 16.9%에서 2004년 약 70% 낮아진 5.5% 수준

2) 무역투자 자유화와 사업원활화를 묶어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TILF)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협력 분야	주요 성과
1. 무역투자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회원경제간 상품무역(수출과 수입)은 1989년 APEC 설립 당시 1.7조 달러에서 연평균 8.5% 증가하여 2007년 8,44조 달러로 APEC 회원경제들의 총상품무역의 약 67% 차지 - APEC 회원경제 간 30개 이상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아태 지역 차원의 FTA 가능성 검토 및 15개 모델조치 개발 - APEC은 지난 20여 년간 WTO 다자무역협상 진전의 촉매로서 역할
2. 사업원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I)의 결과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역내 거래비용의 5% 감축 - 2단계 무역원활화 실행계획(TFAP II)으로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추가적으로 역내 거래비용 5% 감축을 목표로 추진 - 2008년 투자 원활화 실행계획이 승인되어 회원경제들의 투자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3. 경제기술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회원경제들의 능력배양을 통하여 역내 경제활동 및 무역자유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1993년 능력배양사업을 실행한 이래 1,200여 사업이 실행되었으며, 2011년 중에는 85개의 제안된 능력배양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 특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디지털 격차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00년 역내 인터넷 이용을 2005년까지 세 배 증대시키는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 TELMIN에서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015년까지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 - 7개 회원경제에서 41개 APEC 디지털기회센터(ADOC)가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디지털 번영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ICT를 성장과 발전의 촉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단계를 명시하고 있음
4. 기타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은 또한 의제 면에서 테러대응, 인간안보, 재난대응,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청정개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역내 현안과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진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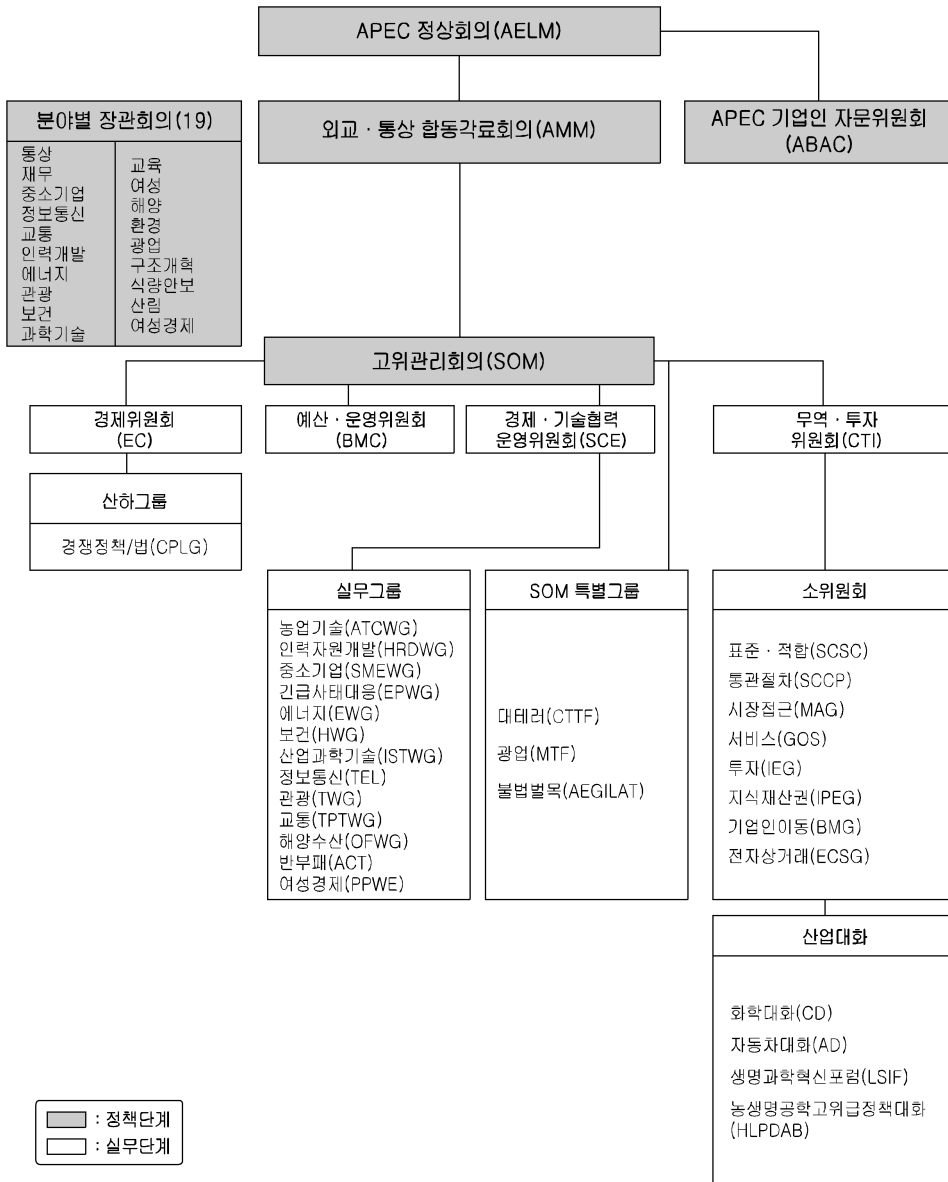
자료: <http://www.apec.org>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2. APEC의 운영 및 2012년 우선추진과제³⁾

APEC은 주요 분야별 실무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 고위관리회의(senior

3) 러시아는 2012년 APEC의 의장국으로서 2011년 12월 13일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개최된 비공식 고위관리회의(Informal SOM)에서 2012년 APEC의 우선과제를 발표하였다.

[그림 1] APEC의 운영조직



자료: 외교통상부 작성 자료, <http://www.epeople.go.kr>

officials' meeting, SOM), 분야별 장관회의(sectoral ministerial meeting), 각료회의(ministerial meeting) 및 정상회의(leaders' meeting) 등 일련의 상향식 논의과정을 가지고 있다. 분야별 장관회의는 교육, 에너지, 환경, 재무, 식량안보, 보건, 해양, 과학 기술, 중소기업, 정보통신, 관광, 통상, 교통 및 여성경제 등 19개 분야에 대한 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재무, 중소기업, 통상 분야의 장관회의는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분야별 실무그룹 및 전문가그룹은 경제위원회(Economic Committee, EC) 산하 1개 전문가그룹, 무역투자위원회(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CTI) 산하 8개 전문가그룹 및 4개 산업 분야별 대화,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SOM 상임위원회(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ESC) 산하 13개 실무그룹 및 3개 특별작업그룹으로 세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APEC은 매년 의장 회원경제(host member economy)를 선정하고, 의장 회원경제의 주도로 그 해의 주제(theme) 및 우선추진과제(priorities)를 정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일관된 논의와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012년의 의장 회원경제는 러시아이며, 러시아는 금년 APEC의 주제를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글로벌 경기위축 및 금융부문의 불확실성 증대에 직면하여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및 성장 증대를 2012년 APEC의 목표로 삼으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호주의 척결과 역내

〈표 3〉 2012년 APEC(러시아)의 주제 및 우선추진과제

주제(theme)
성장을 위한 통합, 번영을 위한 혁신(Integrate to Grow, Innovate to Prosper)
우선추진과제(prior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투자 자유화와 역내 경제통합 확장 - 식량안보 강화 -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설립 - 혁신적인 성장 촉진

자료: APEC 비공식 고위관리회의(2011년 12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자료에서 정리

경제통합 확대, 식량시장 안정,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수립, 혁신정책의 촉진의 네 가지 우선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3.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 개요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WG 또는 TEL)은 인적자원과 개발협력 전략을 포함한 적절한 전기통신 및 정보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함으로써 아태지역의 전기통신 및 정보인프라 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 TELWG은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출범 초기에 아태정보인프라(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PII)의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후 아태정보사회(Asia-Pacific Information Society, APIS)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비전을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TELWG은 자유화 운영그룹(LSG) 및 산하 MRA 테스트포스(MRATF), ICT 개발 운영그룹(DSG), 보안 및 변형 운영그룹(SPSG) 등의 세부 분야별 운영그룹들을 통한 협력 의제의 설정, 논의 및 사업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표 4> APEC TELWG의 세부 운영그룹

세부 운영그룹	주요 사업프로그램 분야
- 자유화 운영그룹(LSG)	ICT 분야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경쟁과 투명성 제고 등 효율적인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촉진
(LSG 산하) * MRA 테스트포스(MRATF)	전기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 및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 추진
- ICT 개발 운영그룹(DSG)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ICT 활용 촉진
- 보안 및 변형 운영그룹(SPSG)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신뢰 촉진

자료: <http://www.apec.org>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

먼저, 자유화 운영그룹(LSG)은 ICT 분야의 무역과 투자 자유화, 효율적인 정책 및 규제 프레임워크, 상호인정협약(MRA) 관련 이슈를 포함한 ICT 분야의 무역투자 원활화, 경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능력배양, 규제 라운드테이블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사업과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최근 LSG의 추진사업 및 작성된 보고서로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에 관한 워크숍, 지역무역협정(RTA)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통신 항목에 관한 지침, 국제 모바일로밍의 소비자정보 규정에 관한 지침, TEL 44에 대한 LSG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 LSG 산하에 설립되어 있는 MRA 테스트포스(MRATF)는 전기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CA)의 이행과 전기통신기기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ETR)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ICT 개발 운영그룹(DSG)은 2015년까지 모든 APEC 회원경제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확장, 개발도상 회원경제들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 및 확산, 취약계층의 ICT 접근성 강화, 새로운 기술(IPv6, 그리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개발 및 이행,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ICT 활용 촉진(그린 ICT, 스마트 그리드, 재난관리, 전자정부, e-health, e-education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 진행된 DSG의 사업과 보고서로는 브로드밴드 접근 촉진을 위한 인프라 공유에 관한 워크숍,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그린 ICT 모범사례 전파에 관한 워크숍, APEC 회원경제들의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브로드밴드 발전 및 인터넷 활용 강화에 관한 워크숍, 재난관리 세미나, IPv6에 관한 워크숍(인터넷 2010의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TEL 44에 대한 DSG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SPSG)은 네트워크, 인프라, 서비스, 기술, 애플리케이션 및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신뢰 촉진, CERTs 및 CSIRTs, 스팸, 스파이웨어 및 사이버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인적자원개발 및 능력배양,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인식 조치의 이행, 사업과 무역 면에서의 ICT 활용에 대한 보안, 신뢰 촉진 및 민간부문과의 논의를 통한 사업원활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SPSG와 관련된 사업 및

보고서로는 도메인명 서비스 보안 확대(DNSSEC) 연구에 관한 워크숍 및 훈련, 사이버범죄 전문가그룹회의, 2011 APEC 지역 사이버보안 정책 진전에 관한 워크숍, 2010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 자발적 사이버보안 실행규범, TEL 44에 대한 SPSG 회의보고서 등이 있다.

II. 정보통신부문(TEL) 추진동향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1. TELWG의 주요 활동성과 및 추진사업

(1) 주요 활동성과

APEC 회원경제들은 2000년 브루나이 정상선언(Brunei Declaration)에서 설정된 2005년까지 역내 인터넷 접속을 세 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와 2010년까지 보편적 인터넷 접속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현재 회원경제들은 TEL이 설정한 2015년까지의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다. TEL은 ICT의 활용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ICT의 역할 제고와 함께, 최근에는 그린 ICT의 전파와 재난관리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TEL은 상호인정협약(MRA)의 이행을 포함한 ICT 분야에서 무역과 투자 원 활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기기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CA)은 1999년 7월 1일 발효되어 이행 1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동 협약은 제품의 승인과 관련한 비용감소 및 시장접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축시킴으로써 제조자들에게 도움을 줌과 동시에, 다양한 제품들을 경쟁적인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2010년 10월 제8차 TEL 장관회의(TELMIN 8)에서는 MRA-CA를 완성하고, 이를 한 차원 격상시키기 위한 전기통신기기 기술규정의 동등성에 관한 상호인정협약(MRA-ETR)의 문안이 완성되어 승인되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은 TEL의 또 다른 우선추진과제이며, 다양한 사이버안전 발의들(cyber security initiatives)이 TEL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29일에는 사이버보안 인식기념일 행사와 관련하여 전시회를 함께 출범하였으며, 이는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TEL은 상호이해의 제고를 통한 발전과 시너지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 및 다른 국제기구들과 활발한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많은 TEL 사업들이 민간부문 또는 민간-공공부문 협력, 특히 ITU, OECD, Global Business Dialogue on e-Society (GBDe), Asia Pacific Network Information Center(APNIC), Internet Society(ISOC),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sers Group(INTUG) 등과 공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2) 최근 활동 및 추진사업⁴⁾

2011년 TEL 사업계획에 나타난 최근의 활동은 정상 및 각료회의의 결정 및 지시사항, 우선추진과제, 기업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mmittee, ABAC)의 권고사항(recommendations) 등을 반영하고, 2010~2015년 TEL 전략적 실행계획과 일관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다섯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CT 개발

- 2015년까지 모든 APEC 회원경제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확장
- 개도국 경제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발굴 및 확산
- 특별한 필요(special needs)를 가진 그룹의 ICT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하도록 하는 전략의 개발 및 이행 장려
-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공공부문 및 민간의 IPv6 기반구조의 채택 촉진, IPv6로의 효율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guidelines)의 개발 및 촉진
- 각 회원경제 내의 효율적인 인프라 공유를 위한 최적 접근방법의 개발 및 정

4) 2011년 TEL 사업계획 보고서(APEC(2011), "TELWG Proposed Workplan 2011", SOM Steering Committee on ECOTECH, March.)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보고환 플랫폼 제공

2)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 제고

-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리드 컴퓨팅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술 및 서비스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회원경제 간 정보공유와 협력 촉진
- 스마트 그리드 및 센서 네트워크와 같은 ICT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촉진
- ICT 애플리케이션 관련 모범사례 공유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과 확산 촉진, 개인정보보호와 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을 촉진하기 위한 소비자보호 정책에 중점
-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이니셔티브 개발 촉진, 모범사례의 보급, 정보공유, 기술협력, 교육 및 훈련 등을 포함한 APEC 사이버보안 전략, 신뢰, 안전 및 지속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APEC 전략과 연계 강화
- 효율적인 사이버보안 인식 이니셔티브의 이행 촉진, 능력배양 및 다양한 APEC 활동에 통합, 연례 APEC 사이버보안 인식 기념일 행사의 개최를 통한 회원경제들 간의 협력 강화
- 인터넷 기술협회, 인터넷서비스사업자, 통신서비스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의 개발
- 취약한 그룹, 특히 어린이들을 온라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유 및 정책 촉진(예, 안전한 온라인 환경보장을 위한 회원경제들의 능력배양)
- 정보교류의 촉진을 통한 안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경제 육성

4) 역내 경제통합 촉진

- APEC 역내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협정을 원활하게 하는 ICT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 적합성평가를 위한 상호인정협약(MRA)에 참여하는 회원경제 확대 및 기술

요건의 동등성에 관한 MRA 이행

- 상호접속과 국제 모바일 로밍 시장 등에서 경쟁과 투명성을 촉진하기 위한 APEC 정책 및 규제담당자의 능력배양
-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투자의 촉진 및 산업경쟁 증대 등 상호접속요금을 인하시키기 위한 인프라와 메커니즘의 보급 장려
- 소비자불만 처리 메커니즘, 서비스 가격 및 대체기술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 회원경제들의 TEL 사업 및 시장경쟁과 투자의 촉진을 위한 규제조치 관련 지식과 경험 교류 등에 참여 제고
- 해저케이블 사고 감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정보의 확산을 통한 해저케이블 보호 강화

5) ICT 부문 협력 강화

- APEC 내 다른 포라(forum)들과 ICT 관련 활동들에 대한 상호조정 강화
 - * 예) APEC 내 다른 작업반 등과의 연계 이슈 관련 추진사업
 - 무역투자위원회와 WTO 참조문서 채택 및 이행면의 진전 상황 보고
 - 전자상거래 운영그룹, 대테러 TF와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 보건작업반과 효율적인 e-health 애플리케이션 개발
 - 위기대응작업반과 위기대응, 재난 방지 및 완화에 ICT 활용을 통한 이익 촉진
- ITU, APT, OECD, 인터넷 관련 기술 및 관리기구 등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및 중복 회피
 - * 예) 민간 비즈니스 부문, 다른 국제기구 및 이해당사자와의 연계 강화에 대한 정상 및 장관들의 요구에 대응하여 제안된 사업
 - 사이버보안 조치의 개발 및 이행 촉진
 - 국제통신비용의 감축
 - 환경에 대한 도전에 대응

2.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와 TEL 전략적 실행계획: 2010~2015

(1)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와 오키나와 선언문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APEC은 주요 분야별 실무그룹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각료회의 및 정상회의 등 일련의 상향식 논의과정을 가지고 있다. 정보통신 장관회의(TELMIN)는 1990년 정보통신 실무작업반(TELWG)이 설립된 이후, 1994년 11월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 정상의 제안에 따라 APEC 정상들의 합의로 창설되었다. 그리고 1995년 5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TELMIN 1)가 개최되어 아태정보인프라(APII) 개발을 위한 서울 선언문(Seoul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이후 대략 2~3년 간격으로 부정기적으로 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2008년 태국 방콕에서 제7차 회의(TELMIN 7)가 개최되었으며, 2010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제8차 회의(TELMIN 8)가 개최되었고, 2012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제9차 회의(TELMIN 9)가 개최될 예정이다.

〈표 5〉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 개최 현황

회의 차수	의장 회원경제(개최지)	개최 연월
TELMIN 1	한국(서울)	1995년 5월
TELMIN 2	호주(골드코스트)	1996년 9월
TELMIN 3	싱가포르	1998년 6월
TELMIN 4	멕시코(칸쿰)	2000년 5월
TELMIN 5	중국(상하이)	2002년 5월
TELMIN 6	페루(리마)	2005년 6월
TELMIN 7	태국(방콕)	2008년 4월
TELMIN 8	일본(오키나와)	2010년 10월
TELMIN 9	러시아(상트페테르부르크)	2012년 8월(예정)

자료: APEC 웹페이지, <http://www.apec.org>

2008년 TELMIN 7은 ‘디지털 번영: 도전을 성취로 전환’을 주제로 개최되어 2000년에 정상들이 설정한 역내의 인터넷 접근을 2005년까지 세 배로 증가시키는 브루나이 목표(Brunei Goals)가 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0년까지 보편적 인터넷 접근의 브루나이 목표 달성을 위한 APEC 역내 개별 회원경제들의 진전을 평가하며, 2015년까지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달성이라는 의욕적인 목표를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2010년 TELMIN 8은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회-경제적 성장의 엔진으로서 ICT’를 주제로 개최되어 ‘APEC TEL 전략적 실행계획 2010~2015’(이하 TEL 전략적 실행계획)를 승인하고, 동 실행계획의 체계와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한 오키나와 선언문(Okinawa Declaration)을 채택하였다. 특히 오키나와 선언문은 2009년 싱가포르 APEC 정상선언문(‘지속성장과 역내 연계’)에서의 혁신과 지식기반 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를 모색한다는 것을 환영하고, TEL 전략적 실행계획의 첫 번째 우선추진대상 분야인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ICT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의 목표 달성과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즉, 2000년 정상들에 의해 승인된 APEC 회원경제들에서 2010년까지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의 브루나이 목표가 대체로 달성되었음을 환영하였으며, 2008년 장관회의(TELMIN 7)의 결과 방콕 선언문에 포함되고 2009년 싱가포르 정상선언문에서 정상들이 환영한 ‘2015년까지 APEC 지역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근 목표 달성(achieve universal broadband access by 2015)’을 향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차세대 고속 브로드밴드 실현(realize next generation high speed broadband by 2020)’의 의욕적인 목표 달성을 향한 TEL 사업을 치하하였다.

이하에서는 TEL 전략적 실행계획과 다섯 가지 우선추진대상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2) APEC TEL 전략적 실행계획: 2010~2015

APEC 출범 시부터 정상과 각료들은 경제성장의 촉진과 APEC의 무역투자 자유화, 기업활동의 원활화, 경제기술협력 등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ICT가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고 있다. APEC TEL은 정상 및 TEL 장관회의 차원에서 지시

되고 설정된 우선추진대상 분야들에 대해 2010~2015년을 목표로 각 운영그룹 및 테스크포스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APEC TEL 전략적 실행계획: 2010~2015’에 담아 제안 및 이행하고 있다. TEL 전략적 실행계획은 APEC TEL이 2010~2015년의 기간 동안 다음의 다섯 가지 우선추진 대상분야별로 APEC 전반 및 TEL의 추진목표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중점과제와 핵심 활동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제8차 TEL 장관회의(TELMIN 8)에서 승인되었다.

- ①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개발
- ②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고
- ③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 ④ 역내 경제통합 촉진
- ⑤ ICT 부문의 협력 강화

1)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개발

2010~2015년 APEC TEL 활동 핵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까지 보편적 접근 모든 APEC 회원경제에서 2015년까지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 접속을 달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경제 지원을 위한 전략 개도국 경제들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굴하고 확산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ICT 보급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people with special needs)이 ICT에 더욱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원경제들의 전략 개발과 이행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IPv6 보급 정보공유와 기술협력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IPv6 인프라 채택을 촉진 회원경제들의 IPv6로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과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공유 정보교환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각 경제 내의 효율적인 인프라 공유를 위한 모범사례 접근방법 개발

2)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고

2010~2015년 APEC TEL 활동 핵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컴퓨팅과 그리드 컴퓨팅 등과 같은 진보되고 부상하는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회원경제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그리드와 센서네트워크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 제고, 환경 면에서의 성과 등을 위한 스마트 그리드와 센서네트워크 등 ICT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장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경제적 활동을 추진하는 ICT 애플리케이션 다음과 같은 ICT 애플리케이션 관련 모범사례들을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 ICT 이행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모범사례 개발 및 촉진 - 재난관리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재난대응 효율성 제고 - e-commerce, e-health, e-education, e-government를 포함한 온라인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ICT 활용 모범사례 발굴 및 촉진 - 시범사업 추진

3)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2010~2015년 APEC TEL 활동 핵심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을 위한 전략의 개발 및 확산 개인정보 보호와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을 촉진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에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 능력배양 APEC 사이버보안 전략,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APEC 전략 등에 따라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발의의 개발 촉진 관련 모범사례 보급, 정보공유, 기술협력, 교육훈련 등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인식 발의의 이행능력을 배양 및 촉진 사이버보안 활동을 더 넓은 범위의 APEC 활동에 통합 APEC 사이버보안 인식의 날 행사를 연례행사로 개최하여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계와 사이버보안 발의 효과적인 사이버보안 발의 개발 및 대응을 위해 인터넷 기술협회, 인터넷 서비스사업자 및 통신사업자 등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협력

○ 취약그룹을 위한 안전한 온라인 환경
 온라인상의 위협으로부터 취약 그룹,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촉진 및 정보 공유
 회원경제들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확보를 위한 능력배양 발의의 이행

○ 인터넷경제
 정보교환의 촉진을 통한 안전하고 생산적인 인터넷경제 촉진

4) 역내 경제통합 촉진

2010~2015년 APEC TEL 활동 핵심 분야

○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
 APEC 역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협정을 촉진하는 ICT 정책과 규제 프레임워크의 개발

○ 기술 면에서의 적합성평가와 기술요건의 동등성
 회원경제들의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약(MRA)에의 참여 증대
 기술요건의 동등성에 관한 MRA 이행

○ 국제 모바일 비용
 상호접속과 국제 모바일로밍 시장 등에서 경쟁과 투명성 촉진을 위한 APEC 정책입안자와 규제기관
 의 능력배양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촉진 등 산업경쟁 증대 및 상호접속비용을 줄이기 위한 인프라와
 메커니즘의 확산을 촉진

○ 소비자 인식
 불만처리 메커니즘, 서비스 가격 및 대체기술 등에 대한 소비자인식 개선

○ 동료 간 학습
 회원경제들의 TEL 사업과 관련 정보 및 경험의 교류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시장 경쟁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관된 규제조치 촉진

○ 해저케이블 보호
 파피 사고를 줄이고, 사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정보를 통합 및 확산함으로써 해저케이블 보호를
 제고함

5) ICT 부문의 협력 강화

<p>2010~2015년 APEC TEL 활동 핵심 분야</p> <p>○ APEC 역내 협력 APEC 역내 ICT 관련 활동의 상호조정 강화 - 무역투자위원회와 ICT의 무역 로지스틱스(logistics)에 대한 기여방법 발굴(예, APEC 공급망 연계 프레임워크에 대한 기여 및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촉진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 강화에 기여) - 전자상거래운영그룹 및 반테러 테스크포스(CTTF)와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 보건작업반과 효과적인 e-Health 애플리케이션 개발 - 비상시준비작업반과 비상시준비 및 재난방지/경감을 위한 ICT 활용 촉진</p>
<p>○ APEC 역외와의 협력 - 관련 사이버안전 발의를 개발, 이행 및 촉진 - 국제통신비용 감축 - 관련 환경 면의 도전과제에 대응 등의 이슈들에 대해 관련 다자기구, 인터넷 관련 기술 및 행정조직들과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p>

3.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

이번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의 결과로 채택될 장관 선언문은 ‘ICT 활용에 있어서 경제성장과 번영 촉진을 위한 신뢰와 보안 구축(Building confidence and security in the use of ICT to promote economic growth and prosperity)’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전례에 따라 개최지명을 따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으로 명명될 예정이다. 현재 논의 중인 동 선언문의 초안은 2010년 TELMIN 8의 오키나와 선언문 및 TEL 전략적 실행계획과 유사한 체계로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개발,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 역내 경제통합 촉진, ICT 부문의 협력 강화라는 TEL의 다섯 가지 우선추진 대상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문은 구성체계 면에서 이전의 두 문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단점을 보이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장관 공동선언문에서 기대되는 핵심목표의 설정이나, 미래 비전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취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의장 회원경제인 러시아의 관심사를 반영하여 ICT 인프라 보안 및 정책에 관한 제안사업의 사업명 및 세부적인 내용이 장황하게 기술되어 있는 점 등 장관 공동선언문의 격에 적절하지 않은 일부 내용들이 눈에 띈다. 한편, 한국은 TEL에 대한 한국의 주요 기여사업이자 이번 TELMIN 9의 주제인 ICT 활용의 신뢰구축과 관련성이 높은 'ICT 역기능 방지 교육을 위한 APEC 훈련 프로그램'사업의 성과에 주목하는 내용을 초안에 반영해 놓은 상태이다. 동 선언문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입부분에서는 2011년 APEC 호놀룰루 정상선언문에서 아태지역 경제통합과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의 보고르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태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지지하고,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애플리케이션 등 ICT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과 활용이 향후 아태지역 통합을 진전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나아가 ICT가 식량 및 에너지 안보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과제 및 재난 등 아태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점차 더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신성장 촉진을 위한 ICT 개발과 관련해서는 2010년 오키나와 선언문에서 언급한 2015년까지 APEC 역내에서 브로드밴드에 대한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에 의한 접근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2020년까지 차세대 초고속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달성을 향한 활동을 지속하도록 TEL에 권고하고 있다.

ICT 활용을 통한 사회-경제적 활동의 제고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디지털 경제에 대한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TEL이 관련 전략을 개발하고 이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1년 APEC 정상선언문에서 사회경제적 문제의 해결에 ICT 활용지원에 관한 사업을 지속할 것을 촉구한 내용을 환영하고, 2015년까지 TEL 전략적 실행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제, 사회, 기술 및 기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돕기 위해 회원경제들 간에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TEL에 요청하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 촉진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람이 정보사회의 해

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회원경제들이 ICT 활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ICT 환경과 온라인상에서 취약한 이용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TEL이 OECD, ITU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역내 경제통합 촉진과 관련해서는 APEC 역내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쟁시장의 발전 촉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협력을 제고하는 TEL의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 모바일로밍 비용의 비례적인 감축을 위해 APEC 회원경제들이 사업자 간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ICT 부문의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APEC 지역의 정보격차가 ICT의 혜택을 공유하는 데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인프라의 확충과 ICT 활용능력 향상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TEL이 APEC 내 다른 실무그룹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ICT 관련 활동에 대해 상호조율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시너지 효과와 중복적인 노력을 피하기 위해 ITU, OECD 및 인터넷 관련 기술 및 행정 전문가집단과도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Ⅲ. 결 론: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TELMIN 9) 대응에의 시사점

2012년 제9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PEC의 성격 및 운영체제, TEL의 목표 및 주요 추진사업, 우리나라의 위상과 관심현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기여와 함께 우리의 관심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APEC은 지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과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아태지역 최고의 지역경제협력체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FTA 추진 로드맵’을 통하여 자유무역협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까지 특정한 지역블럭에 속하지 않았고, 동북아 삼국 간에 제도화된 경제협력의 기반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1989년 APEC의 출범 및 이후 논의와 추진과정에서 주도적

인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APEC은 다자간 협력기구에서 우리의 입지와 협력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APEC TEL은 1990년 정보통신정책 개발 및 정보인프라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제1차 장관회의(TELMIN 1)를 1995년 5월 아태정보인프라(APII)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PEC은 다양한 분야별 실무작업반회의, 고위관리회의, 장관회의 및 21개 회원경제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다지는 정상회의(APEC Economic Leaders' Meeting)를 매년 개최하는 등 일련의 조직화된 절차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관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 재정, 중소기업, 통상 등의 분야와 정보통신 분야는 APEC 내의 추진력 면에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재 2년 또는 3년마다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정보통신장관회의를 격년으로 정례화하고, 가능하다면 중장기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 최소한의 행정기능을 가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협력체로서 APEC은 회원경제들의 자발적인 기여사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점차 위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TEL 차원의 기여사업을 점검하고, APEC과 TEL 부문에서의 우리의 위상과 관심사에 부합하는 기여사업을 발굴하여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뿐 아니라,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 민간부문의 폭넓은 참여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TEL 실무그룹 및 산하 운영그룹, 테스크포스 등과 관련한 우리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원을 바탕으로 의장단에 적극 진출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입장과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제 9차 정보통신장관회의와 관련해서는 장관회의와 산·관·학 삼자대화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 채택하게 될 장관 선언문(St. Petersburg Declaration)에 우리나라의 관심사와 기여사업 등이 적절히 평가 및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APEC 역내 ICT 분야의 국제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선순환적인 역동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향후 우리나라가 주최할 ICT 분야의 장관급 회의인 2013년 OECD 정보 보호 고위급회의(High Level Meeting, HLM) 및 런던 사이버스페이스회의(London Conference on Cyberspace)의 후속회의, 2014년 ITU 전권회의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활동과 홍보를 통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APEC (2008). “Bangkok Declaration–Digital Prosperity: Turning Challenges into Achievement”. The Seventh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TELMIN 7). Bangkok. Thailand. April.
- _____ (2008). “APEC Digital Prosperity Checklist”. November.
- _____ (2010). “TEL Strategic Action Plan: 2010~2015”. *2010/TELMIN/024*, October.
- _____ (2010). “Okinawa Declaration–ICT as an Engine for New Socio-economic Growth”. The Eighth APEC Ministerial Meeting on the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Industry (TELMIN 8). Okinawa. Japan. October.
- _____ (2011).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Working Group (TELWG) Proposed Workplan for 2011”. *2022/SOM1/SCE-COW/17*, March.
- _____ (2011). “Russia announces APEC’s priorities for 2012”. Informal Senior Officials’ Meeting. St. Petersburg. Russia. December.

APEC 웹사이트 <http://www.apec.org>